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5월10일) 집권 3년을 맞이했다. 이제 집권 후반기로 들어선 것이다. 하지만 국정 운영 지지도는 71%(한국갤럽 5월 1주 조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과거 조사한 역대 대통령의 취임 3주년 무렵 지지도는 박근혜 대통령 42%, 이명박 대통령 43%, 노무현 대통령 27%, 김대중 대통령 27%, 김영삼 대통령 41%, 노태우 대통령 12%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70%를 넘는 건 지난 2018년 7월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전례 없는 압도적 지지 속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을 통해 남은 임기 2년 동안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최근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의 길

지난 3년간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 때문이라기보다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반사이익의 성격이 강하다.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가 53%로 가장 많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런데, 지지 이유로 정책 항목인 '복지 확대'는 4%에 불과했다. 대구·경북에서 긍정 대 부정은 53% 대 30%였다. 60대 이상에서도 그 비율이 64% 대 26%였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가 없고 전통적인 보수 진영에서조차 문 대통령 지지에 대한 긍정 평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은 그만큼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제임스 데이비스(James C Davis)가 제시한 J-커브 이론을 적용하면, 코로나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와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취 간에 인내할 수 없는 격차가 커지면 민심이 폭발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3년을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면 코로나 방역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국민이 기대했던 성과는 아직 요원하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구상과 약속은 정반대 방향으로

흘렀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지 못하고,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지 못했으며, 대통령부터 새로워지지 못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지 못했고, 보수와 진보의 갈등도 끝내지 못했으며, 대통령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지 않았다.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움 결과도 체감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통합과 공존'이 아니라 '분열과 독존'이 판을 쳤다.

문 대통령이 그토록 갈망하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한 도덕성, 예리한 역사적, 저항하기 어려운 설득력, 누구나 희구하는 미래의 비전, 그리고 심금을 울리는 상징성을 토대로 '변혁적 리더십'을 펼쳐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과 대통령의 관계는 순화되어 정치 과정을 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국민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가 지향하는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국민의 에너지를 최대한도로 끌어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용기와 협치 그리고 겸손이 필요하다. 터미시 스나이더 미국 예일대 교수는 '코로나 이후 인류가 경제

해야 할 것으로 전체주의 확산, 포퓰리스트 특세, 이념적 편 가르기, 사실을 무시한 선전·선동, 정부의 공포 마케팅 등을 제시했다.

그는 "위기 상황인 지금이야말로 공포가 아닌,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냉철한 판단이 중요하다"면서 "코로나라는 위기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 정부가 무엇이든 해도 되는 기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전 국민 고용보험 실시, 한국판 뉴딜 구축,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과 같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 못지않게 지금까지 추진했던 핵심 정책들이 왜 성과를 내지 못했는지 깊이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책 오류가 발견되면 정책 기조를 과감히 바꾸는 용기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강성 친문(친 문재인)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지지와 성원을 받는 통합 대통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단언컨대, 겸손한 권력만이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 행동하지 않는 도전은 기만이고, 성과 없는 비전은 허구다.

종교칼럼

문명화와 자연화



황성호  
신부·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문명화'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궁금하다. 문명의 사전적 의미는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기술적, 사회 구조적인 발전. 자연 그대로의 원시적 생활에 상대하여 발전되고 세련된 삶의 양태를 뜻한다'이다. 그리고 문명화에 대해서는 '원시적 생활에서 벗어나 발전되고 세련된 삶의 모습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이라 설명한다. 문명화라는 단어가 궁극했던 이유는 잘 발달된 아름다운 도시의 이면에 가려진 노숙자들을 만났을 때, 승패와 소유의 기준인 경쟁과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엄한 인간성이 저평가되고 파괴되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풍요롭고 편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보다 노예와 같은 삶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이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영어 시험 시간이 되면 내 귀를 쫓아 세우고 모든 정신을 집중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듣기 테스트였다. 문명화된 선진국의 언어를 습득하고 그들의 문물을 배우고 받아들여야만 그 시대를 잘 살아가는 것이고 뒤처지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시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변화되어 버린 현재,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고 어떤 나라가 후진국인지 궁금하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에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삶에서 무엇을 놓치고 살았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스스로 묻게 했다. 그렇다.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온 힘을 다해 노력했던 삶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문명화라는 이름에 감춰진 이면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명화와 그 이면에 가려진 것 사이, 선택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갈림길에 있지만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역설적이다. 우리는 문명화된 삶, 풍요와 편리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의 욕구를 완전히 채울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놓고 싶지 않다.

최근 고려대학교 석영준 교수가 번역한 레프 톨스토이의 '어반 일리치의 죽음'과 '광인의 수기'를 읽었다. 역자는 이 두 작품을 통해 톨스토이가 이야기하려는 삶과 죽음, 그리고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문명과 문명으로 인한 부도덕의 관련성을 '문명화'란 표현으로 정의했다. "문명화된 인간, 문명화된 사회, 문명화된 계급이 부도덕한 것이며 대부분의 문명화된 인간이 누리고 있는 것들, 재산, 관습, 교양, 종교, 예술이 부도덕한 것이다." 톨스토이는 신앙 깊은 정교회 신자였다. 그가 종교를 부도덕하다고 한 이유는 정교회의 교리와 전례는 명확하고 영적이지만 그 정교회의 신앙을 사는 이들의 삶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문명화'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함께 톨스토이는 반문명적인 것을 '자연화'로 설명할 수 있다고 역자는 말한다. '자연화'는 야만의 삶이 아니라 자연에 가까운 삶, 소리에 따르는 삶, 자연스러운 삶으로 해석했다. 곧 톨스토이는 이 '자연화'는 진실한 것이며 그레

서 성스러운 것이고, 여기에서 도덕적인 가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역자는 말한다.

우리는 문명화에 의문을 던져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진실하고 자유로운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며 이것은 또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답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삶과 죽음, 진정한 이타적 행위, 친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끼꺼이 바치는 조건 없는 사랑의 행위가 바로 문명화의 이면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이타심은 문명화로 인해 잃어버린 참된 인간의 삶을 되찾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철저한 자기 포기의 삶으로 타인을 위해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가는 말이다. 그러면서 문명화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가난하고 소외된 삶, 풍요와 편리함을 쟁취하여 가면으로 덧칠해진 거짓된 삶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마태오 복음 7장 12절 예수의 말씀이 문명화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은 수많은 시민들의 뒤이은 투쟁으로 수십 년이 지나서야 올바른 이름과 의미를 찾았다.

5·18에 대한 법률적, 역사적 평가는 결코 완결된 것이 아니다. 남은 진실을 규명하고,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에 맞서는 일은 우리의 몫이다. 윤상원 열사는 살아남은 이들에게 "우리들의 항쟁을 잊지 말고 후세에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부탁하였다. 열사는 역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믿었고, 이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믿었다. 이들이 더 나은 민주주의, 더 큰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리라 기대하였다. 그럼으로써 5·18은 온몸으로 겪고 싸웠던 이들을 승리자로 기록할 것을 소망하였다.

국가보훈처는 금년 5·18 40주년을 맞아 5·18의 자유와 민주, 나눔과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는 정성스럽고 의미 있는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다. 5·18 항쟁을 기억하는 자리이다. 앞서간 이들의 뜻이 이어 보다 나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여야겠다.

社說

뜻깊은 5·18 40주년 행사 차질 빚지 않도록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정부 기념식 이 오는 18일 오월 광주의 심장이었던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리게 된다. 불혹을 맞은 5·18 기념식 행사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공식 활동을 시작한 시점과 맞물려 개최돼 자못 의미가 크다 하겠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지 않아도 주요 28개 행사 가운데 5·18 기념식 등 아홉 개 주요 행사가 대폭 축소돼 치러진다. 5·18 전야제 등 아홉 개 행사는 아예 취소됐는데 불가피한 일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5월 행사의 의미와 본질을 되새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안적 고민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탓에 행사 규모 축소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최근 시

청 간부회의에서 "은 국민과 세계인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의 의미를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행사와 작품을 기획할 것을 당부했는데, 기대에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5·18 관련 행사 규모가 줄었다고 국민적인 참여 열기마저 식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와 광주시는 온라인 추모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적극 달려 전 국민이 5·18 40주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40주년 5·18 행사는 발포 명령자-암매장-행불자 규명 등 그동안 감춰지고 은폐돼 왔던 5월의 진실을 새롭게 추적하고 밝혀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정부와 광주시 등은 국가기념일 행사로 치러지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코로나19 예방의 전범이 되고 민주화운동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주말 잘 넘겨야 재확산 막는다

주춤한 듯싶었던 코로나19가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행히 광주-전남에선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태원 일대를 다녀온 지역민들이 1000여 명에 달해 안심하기는 이르다. 어제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133명으로 이 가운데 38%가량인 51명은 클럽을 직접 방문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는 그만큼 2차 감염자가 많다는 것이요 우리 지역에서도 언제든지 2·3차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본격화되면서 이 지역에서는 사적공원 전망타워와 승촌보 캠핑장 등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순차적으로 개방된다. 광주 시민의 숲 야영장과 승촌보 캠핑장은 폐장 80여일 만인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가고 사적공원의 전망타워도 19일 개방을 앞두고 있다. 재개장에 앞서 충분한 방역과 소독 작업을 했다고는 하

지만 이용자들이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 재확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5·18 40주년을 맞아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가 늘어나고 외지 추모객들의 발길이 잦아질 수밖에 없는 점도 부담이다. 이래저래 이번 주가 좀더 번개점이 될 것 같다.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될지 아니면 소멸 단계로 접어들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도 이번 주를 최대 고비로 판단하고 특별반을 편성해 유휴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다중 시설에 대한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마음가짐이다. 코로나 재확산을 막으려면 '생활 속 거리 두기'라 해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개인위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無等鼓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가 이태원 클럽 감염 확산으로 다시금 우리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음주와 신체접촉이 이뤄지는 탓에 클럽 등 유휴 시설에서의 감염 우려가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젊은이들은 한사코 클럽을 찾는다. 젊은이들의 클럽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클럽은 기록상으로 보면 '판스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됐다. 파인 김동환이 발간한 잡지 '삼천리'

1937년 1월호에는 '서울에 판스홀을 허(許)하라'는 제목의 글이 실려 있는데 당시 연에게 중

가 곤란한 점이 있거든 마치 대판(大阪)에서 시내에는 안 되지만 부외(府外)에 허하듯이 서울 근접한 한강 건너 영등포나 동대문 밖 청량리 같은 곳에 두어 주십시오 청하나다."

이들은 또 자신들이 동경이나 상해 그리고 서양까지도 다녀온 사람들로서, 문명국의 상황을 보면 판스홀은 친구의 장일 뿐 한강의 둔 낭비와 풍기 문란의 장소라는 지적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조선 사람들이 사교를 위해 가는

명월관이나 식도원같은

요릿집은 40~50원의 비싼 유휴비를 내야 하지만, 판스홀은 5원 10원 하는 티켓 값만 들기 때문에 낭비 요소가 없으며 술 먹고 주정 부리는 일도 없다며, 경제적이고 문화적이라는 장점(?)이 있음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판스홀은 허가되지 않았다.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흘러 1950년대에 나이트클럽이 등장한다. 현재는 도시마다 클럽이 없는 곳이 없다. 젊음의 자유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다만 '코로나19'가 물러갈 동안만이라도 잠시 자제할 수는 없는 것일까. /채희중 사회부장 chae@

기고

오월의 기억



하유성  
광주지방보훈청장

오월이 되면 광주에는 이팝나무가 지천으로 얼굴을 밝힌다. 가장 슬픈 날을 가장 화려하게 장식하려는 듯 초록 나뭇잎 사이로 흰쌀밥 같은 이팝나무 꽃이 흐드러진다. 망월동 국립 5·18 민주묘지투 향하는 민주로 길가에 늘어진 이팝나무 꽃잎들은 80년 오월 당시, 민주화를 외치며 질규하던 광주 시민들의 함성으로 피어나는 듯하다. 올해로 민주와 인권, 정의의 햇볕을 높이 들었던 5·18 민주화운동이 40주년이 되었다. 5·18이 정년기를 거쳐 이제 더욱 성숙한 장년기에 접어든 것이다.

계엄군 진군을 앞두고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윤상원 열사는 "오늘 우리는 패배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입니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열사가 내다보았던 5·18과 5·18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역사적으로 승리자가 되었다. 1980년 이후 5·18은 한동안 '광주 사태'로 불리어졌지만 마침내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합당한 이름을 찾았다. 1997년 대법원에서는 전두환을 비롯한 전압군 수뇌부를 반란죄와 내란죄로 단죄하였다. 2002년에는 5·18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이 제정되었고, 국립 5·18 민주묘지가 조성되었다.

80년 5월 광주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썼다. 광주에서 타오른 자유와 정의, 민주화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 햇불이 되었고, 87년 6월 항쟁으로, 마침내 2017년 촛불혁명으로 다시 불타올랐다. 이제 5월 광주는 대한민국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과 희망의 원천으로 자리잡았다.

그렇지만 40년이 지난 아직도 5·18의 진실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책임자는 없다. 사회 일각에서는 5·18을 부정하고 5·18 유공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할 수 없는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역지를 쓴다. 심지어 5·18 유공자 특별 때문에 공무원 시험 합격이 불가능하다는 가짜 뉴스도 퍼뜨린다. 이들은 "2018년도 국가직 공무원 7급과 9급 합격자 5826명 가운데 5·18 민주유공자는 0.1%인 9명"이라는 사실을 제시해도 외면한다. 평화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의 표상이 된 5·18의 역사를 부정한다.

윤상원 열사에게 역사의 신비를 꿰뚫어 보는 날다른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역사는 스스로 기억하거나 판단하는 행위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선택의 순간을 피하지 않고 온몸을 실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그러한 선택에 이름과 의미를 주는 것도 역사가 아니라 공동체 내의 지난한 싸움을 수반한 의사 결정 과정이다. 5·18 민주화운동

<b>光州日報</b>		<b>The Kwangju Ilbo</b>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政</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52 전남본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화부 220-0661 예향부 220-0692 사진부 220-0694 체육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